사람 잡는 폭염·열대야

광주·전남, 익사·탈진·화재 사고 잇따라 3명 사망

폭염과 열대야(熱帶夜·새벽 3시~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계속되면서 익사·전기 과열 화재·탈진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지나친 냉방기 가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물놀이 익사=29일 오후 3시57분께 장흥군 장흥읍 예향리 탐진강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장흥초교 2년 고모(9·장흥군 장흥읍)군이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께는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저수지에서 율촌중학교 3년 양모(16·여수시 율촌면)군이 수영 미숙으로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5시께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에서 가족과 함께 피서 온 박모(68·광주시 서구 화정동)씨가 익사했다.

◇등산객 등 탈진 잇따라=28일 오후 4시35분께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동악산(해발 735m) 등산로에서 송모(56·전북 익산시)씨가 무더위에 탈진, 하반신 마비 증세를 일으켜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이날 오후 2시께에는 영암군 월출산(〃 809m) 천황봉 인근 등산로에서 이모(여·50·경기도 광명시)씨가, 오전 10시께에는 해남군 송지면 달마산(〃 596m)에서 박모(46)씨가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7일 오전 10시께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501 전경부대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박모(22) 상경이 더위에 실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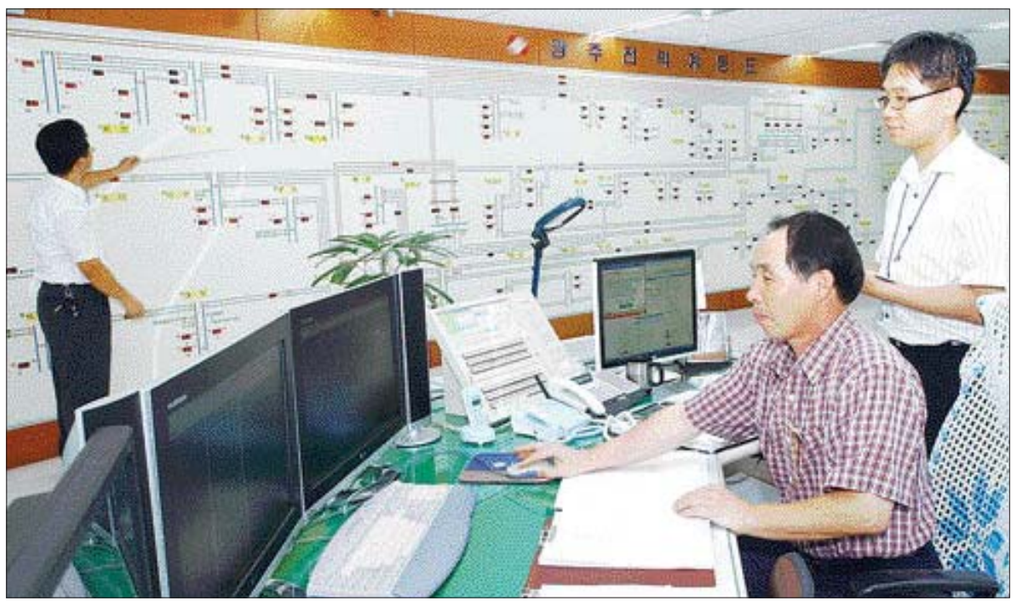
◇전기 과열 화재=29일 오후 1시께 함평군 손불면 김모(65)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1동(560㎡)을 태웠고, 닭 1만여 마리가 불타 소방서 추산 5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환풍기 주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김씨의 말로 미뤄 환풍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28일 오후 9시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전기 과부하로 보이는 불이나 9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노약자·임산부는 가급적 무더위 속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며 "냉방기 등 전열기는 과열을 막기 위해 2~3시간 마다 잠시 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폭염특보' 한전 직원들 비상 광주·전남지역에 연 5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熱帶夜) 현상이 발생하면서 에어컨 등 전력 사용이 급증하자 한국전력 전남지사 직원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순천의 낮 최고기온이 36.4도까지 올랐던 지난 27일,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은 365만㎾로 올 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북한산·수락산 낙뢰 5명 숨져

어제 오전, 등산객 7명 부상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29일 북한산과 수락산, 도봉산에서 낙뢰로 인한 감전 사고가 발생해 등산객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11시55분께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용혈봉 정상 부근 바위에서 안모(57)씨 등 등산객 4명이 낙뢰로 숨지고 최모(45)씨 등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헬기 4대를 동원해 사망자와 부상자를 서울과 의정부, 고양 등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등산객과 부상자들은 "당시 용혈봉에는 여러 산악회원 등 30~40여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쏟아졌다"며 "용혈봉 정상과 아래에서 각각 등산객 일부가 감전된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시간에 의정부시 수락산 8부능선 부근 등산로에서도 낙뢰 사고가 발생해 등산객 임모(여·48)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쳐 인근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이날 도봉산에서도 등산객 지모(여·49)씨가 낙뢰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낙뢰 얼마나 위험한가?

최고온도 3만·전류 2만 암페어
광주·전남서 하루 33회 꼴 발생

낙뢰(落雷·벼락)의 순간 최고온도는 3만 도며, 전류 값은 2만A(암페어)에 달한다. 2만A는 100W 전구 7천 개를 32시간 켤 수 있는 에너지. 이 가운데 80%는 전기 저항이 적은 체내로, 나머지는 피부로 흘러 화상을 입힌다.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는 '폭풍자료'(Storm Data)에서 낙뢰에 맞아 사망할 확률이 240만 분의 1(100만 명당 0.41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고압 전류는 호흡이나 중추신경마비·심장장애·화상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목숨을 건져도 시신경 위축이나 백내장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낙뢰 사고는 일반 감전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매우 높다. 사고 직후 5분 이내에 얼마나 신속히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하는가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결정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낙뢰 일수(日數)는 완도가 21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6일 ▲목포 12일 ▲여수 13일 ▲흑산도 15일 등이었다. 전체 낙뢰 횟수는 1만2천여 회로 하루 32.9회꼴이었다.

이중 지난해 6월10일 광주공항 야전훈련장에 낙뢰가 떨어져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요원인 미8군 방공여단 2-1 방공대대 헤수스 나에라(Jesus Najera·19)일병이 숨지고 다른 3명의 미군도 부상을 입었다.

낙뢰가 칠 때에는 가능한 자세를 낮게 하는 것이 좋다. 벌판에 있는 나무나 키가 큰 나무에는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가지 않도록 한다. 낚시와 골프 등 야외운동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 집안에서도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차 에어컨 켜 놓고 잠든 30대

차량 화재 발생 중화상

29일 오전 6시27분께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 박모(31)씨가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에어컨을 켜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불이 나는 바람에 허벅지와 어깨에 2~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14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 등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새벽께 집에서 잠을 자다 더워 차에 들어가 에어컨을 켜 놓고 다시 잠들었다"는 박씨의 말에 따라 에어컨 사용으로 엔진이 과열돼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정차 중 에어컨 왜 위험하나=자동차 에어컨은 엔진 동력으로 작동되는 '컴프레서'(Compressor)가 냉매(프레온 가스)를 순환시키면서 공기를 냉각시키는 구조.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는 최소 1천~1천200이 되어야 한다. 정차 중 RPM은 700~850에 불과해 에어컨을 켜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린다.

현대자동차 광주서비스 장우성 대리는 "정차 중에는 30분에 한 번 정도는 에어컨을 잠시 꺼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성기능 장애' 40대 남자 투신 자살

지난 28일 오후 4시5분께 광주시 북구 M 아파트에 사는 H(41)씨가 9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목격자 이모(55)씨는 "H씨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발코니에서 투신하려는 것을 보고 급히 올라갔는데, 이미 뛰어내리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H씨는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으나 완치되지 않아 이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H씨가 "성기능 장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농산물 절도 5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고추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김모(53·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부터 각화·매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2곳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간 큰 10대' 논산서 車 훔쳐 광주까지

○…충남 논산의 한 농가에서 승용차를 훔친 10대가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광주까지 차를 몰고 왔다가 경찰에 덜미.

○…29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고모(14·초등학교 6년 중퇴)군은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께 충남 논산시 벌곡면 김모(여·26)씨의 집 마당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는 것.

○…고군은 훔친 차를 몰고 광주까지 130㎞를 달려왔는데, 기름값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김모(여·26)씨 집에 돈을 훔치러 몰래 들어갔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경찰 관계자는 "고군이 그동안 오토바이를 52대나 훔쳐 타고다녀 차량 운전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놀란 표정.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